

군산시, 행복도시실현 '앞장'

1월, 7월 15개사업 이용자 집중모집 및 대상자 선정

군산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1월, 7월 이용자 집중모집 및 예산범위 내 분기별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희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녀심리지원, EYE1004건강두드림(시각안마), 노인문화여가토달서비스 등 총 15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회서비스 예산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16개사업) 37억2천4백만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3개사업) 10억1천4백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사업(도비 보조사업 포함) 15억1천3백만원 등 총 21개 바우처 사업에 62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대비 7억1천8백만원 예산증가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반영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사업이 6억이상 증액됐고, 이용자도 52명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4인가구 585만원) 또는 150%(4인가구 731만원)이하로 사업별 연령, 가구특성 등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서비스별 기준정보에 따른 우선순위(질병, 장애, 연령, 저소득층 등)를 적용해 이용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건비 등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개발·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작년 16개사업에서 15개사업으로 1개사업이 구조조정·폐지(장애인비전형형서비스)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영유아에서 청년, 노인, 장애인까지 군산 시민이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군산시의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연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다리로움·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430여명 채용예정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리로움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43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선정된 시민들은 공공시설과 방역 보조, 환경정비 분야에 투입돼 근무하게 된다.

1차로 참여자 80여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

개 사업장에 19명, 다리로움 일자리사업은 방역보조 분야에 한해 30개 사업장에 59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다리로움 일자리사업 2차 모집을 다음달 초 진행해 읍면동 가로 환경정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용안생태습지공원 환경정비 등 주요 환경정비 분야에 추가로 35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3월부터 참여자를 투입한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익산시민으로 선정된 참여자는 지역 다중이용 공공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역

보조 업무, 자전거 재활용 사업, 보석 박물관 관광지 체험장 조성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등에 투입되어 근무하게 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 정보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063-859-5237)로 하면 된다.

정현용 시장은 "이번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계약심사로 220억원 예산절감

군산시는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 내 기술감사계를 신설한 이후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 2019년 588건 91억원, 2020년 730건 129억원 등 2년 여간 총 220여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등 입찰·계약의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에 예산절

감과 시공 품질 향상 도모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일상감사 404건, 원가심사 184건과 2020년 일상감사 496건, 원가심사 234건에 대해 지난 2년여 동안 적정 원가산출과 창의적 공법을 적용, 계약심사를 한 결과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 시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금액인 220여원을 절감해 시 재정부담을 대폭 완화 시켜주는 등 계약심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당면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현장의 다변화된 문제점 해결과 지속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자료 배포' 및 '기술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기술적인 분야의 최신정보와 현장 시공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건설분쟁 시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올행정계시관에 '기술정보방'과 '건설법률방'을 개설해 그간 기술정보 59건, 건설법률자료 32건을 게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고남철 감사담당관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겠다"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난 12월 31일 삼학동통장협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얼굴 없는 기부천사' 에 군산시 '훈훈'

삼학동 주민센터,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어져

군산시 삼학동 주민센터에 기부천사들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어 추운 겨울날 군산시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경 삼학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100만원의 현금을 맡음이 건네고 사라졌다.

삼학동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기부 선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 일 전에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두 명의 주민은 각각 15만원과 10만원이 담긴 봉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싸들고 전하고 사라졌다.

또한 삼학동에 거주하는 박일남(주민자치위원, (주)광에너지 대표)씨는 지난 12월 21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박일남(주)광에너지 대표)씨는 삼학동 출신의 저수성기한 사업가로 매년 삼학동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로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월 31일 삼학동통장협의회(회장 신명옥)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삼학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웃돕기 성금 기부를 하여 삼학동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신명옥 삼학동통장협의회장은 "연말연시 이웃사랑을 위한 성금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삼학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위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삼학동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부자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최초 한옥도서관 '금마도서관' 시범 운영

도내 최초 한옥도서관인 '금마도서관'이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금마도서관은 지역에서 6번째로 건립된 시립도서관이며 고도보존육성지구 한옥이주단지 내 위치하고 있다.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543㎡,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연속간행물 코너 등이, 지상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대청마루, 야외마당 등이 위치해 있으며 1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금마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린 열린 공간으로 대청마루와 야외마당을 마련해 한옥이 가진 멋스러운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마한백제 특화자료를 구비해 종합자료실에 별도 코너를 마련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열람과 착석은 불가능하며 도서대출과 반납, 회원가입, 상호대차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도서관 출입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아파트 불법거래 단속

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유관기관(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의뢰해 꾸려졌다. 시는 이차 아파트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행정,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과 ▲매도·매수인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경찰에는 수사의뢰를, ▲세무서에는 해당내용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익산시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세력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산=한경봉 기자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요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해 투기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투기 예상 물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매수, 매도인의 자금 출처 자료를 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계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부동산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무자격 중개 불법행위나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선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매일 저크온나라 캠페인